아나키스트도서관 (Korean)

아연주간뉴스단평 2020-10-11

아나키스트연대

아나키스트연대
아연주간뉴스단평 2020-10-11
2020년 10월 11일

[https://blog.naver.com/anarchistleague/
222112746519](https://blog.naver.com/anarchistleague/222112746519)

kr.theanarchistlibrary.org

2020년 10월 11일

차례

1. [양심의국유화는그만두라]	3
2. [유전미필무전땅개]	3
3. [자신의신체는자신의것이다]	4
4. [해산하라]	5

1. [양심의국유화는그만두라]

한국에서양심적병역거부인정및대체복무제가시행됨에따라 A 씨는 2018년 8 월입영을거부했다. A 씨는 2006 년침례를받은여호와의증인신자이다. 하지만법원은 A 씨의전과, 총기게임향유등을이유로그가신실한' 믿음' 을지니지 않았다고판단, 그의양심적병역거부가허위라는판단을내렸다.

도대체법원이어떻게개인의주관적인영역인양심에대해판단할수있다는말인가. 마음속생각의변화마저도우리는법원에승인을받아야하는것인가. 설령 A 씨가법원이나기사의주장처럼' 군대가너무가기싫었' 던것이라고하여도그것역시 A 씨의양심에속하는영역이다.

법원이국민개개인의양심을판단하는조요경같은것을지니고있다면우리는또한사회주의자로서이렇게묻지않을수없다. ” 부르주아체제를지키기위해부르주아군대의복무를거부한다” 는선언은법원이보기에양심적인가아닌가.

대체복무이든혹은모병제이든이러한개개인의양심을국가의입맛대로재단하려는시도는꿈임이없을것이다. 징병제를넘어강제적이고폭력적인' 군대' 라는체제를끝내기위해서는근본적으로' 병역' 이라는괴물과맞서려는노력이무엇보다절실할것이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

2. [유전미필무전땅개]

2020 년 10 월 11 일, 문화체육관광부가국민의힘김예지의원실에제출한자료에따르면 4 대종목군미필선수는 370 명중사이버대학교, 대학원에재학중인선수는 165 명이다. 이들이상위 5 개사이버대학에가져다바치는금액은평균 1,031 만원에달한다고한다. 결국, 돈으로군대를미루고있는셈이다.

국민의힘김예지의원은” 프로선수생명은길지않고, 이런특성을제외하고일반인과동일한것대로판단하는것은고민해봐야할부분” 이라고이야기하며” 병역의무연기목적으로사이버대학에등록하는선수들과이를활용해수익을챙기는학교들의' 상생관계' 대책마련이시급하다” 고발언했는데이것이대관절무슨의미인지파악할수가없다.

첫째로, 프로선수는선수들본인이자유롭게선택한직업이아닌가? 그런데그것때문에다른이들과동등하게취급하지말라니, 도대체이것이무슨차별옹호발언인가?

둘째로, 이미병역연기목적으로선수들은돈을내고, 사이버대학들은그들에게시간을제공하고있다. 이보다얼마나, 어떻게더' 상생' 이가능하다는말인가?

이 '상생' 관계는 많은 사회구성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키우고 있다. 김예지의 원은 왜 이 박탈감을 장려하는가?

결국 '모든 한국남성이 동등하게 부여받은 의무'로서의 병역은 이렇게 환상임이 명백해졌다. 돈이 있는 이들은 소위 '국위선양'을 해서 합법적으로 병역을 피할 때까지 시간을 돈으로 살 수 있다. 국민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심화시키는 군대는 국민들에게 외면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시간을 살 돈이 없어 군대에 끌려가야만 했던 사병들에게 '나를 차별하는 국가'를 위해 목숨을 다 바치라는 주문은 이들을 노예로 취급하는 것보다 낫지 않았는가. 이런 군대 따위, 차라리 없어야 하는 편이 그놈의 '국민통합'을 위해서 더 낫지 않았겠는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

3. [자신의 신체는 자신의 것이다]

지난 7일,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가 위헌으로 판결난지 1년 6개월 만에 정부에서 개정안이라는 것을 내놓았다. 하지만 정부는 역시 이번에도 여성의 신체에 대한 그 억압의 손을 놓지 않았다. 정부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은 14주 내의 임신 중지만을 '허용'할 뿐 24주 이후의 임신 중지 여성을 형사처벌하는 것으로 낙태죄의 완전 폐지가 아닌 사실상 국가가 꺼서 허용하시겠다는 임신중지의 허용 범위를 늘려 주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임신중지의 권리는 그저 임신 주수에 따라서 좌지우지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신체적, 사회적 조건과 주변 환경의 차이점을 무시한 채 국가가 임의적으로 만든 주수 기준을 통해 처벌하려는 행위는 그 자체의 부당성과 모순성을 넘어 국가가 여전히 개인 자신의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여성의 신체에 대한 독점적 통제를 계속하려 함을 보여주고 있다. 역사적으로 국가는 그 태초부터 여성의 신체를 그 자신의 생산 수단으로 취급하며 상위층을 위한 노동력의 재생산성을 독점할 요량으로 여성의 신체를 통제하고 억압해왔다. 우리 세대에 와서도 문제는 현재 진행형으로 행정부의 출산 지도나 출산 '장려' 정책과 같이 여성의 신체에 대한 압제는 그 형태만을 바꾼 채 계속되고 있다.

이젠 그 오랜 억압을 끝낼 때다. 여성의 신체는 온전히 여성 자신의 것으로서 임신 주수에 관계없이 자신의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에 대해 국가가 물론이고 그 어떤 권위도 통제할 권리는 없다. 국가는 임신중지에 대한 권리 침해를 중단하고 더 이상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

<https://www.bbc.com/korean/54446189>

4. [해산하라]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 단계로 내리겠다고 발표했다.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고 지역 감염 숫자 또한 많이 줄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지난 몇 주간 집회를 금지하고, 인민의 의사 표현을 경찰차벽으로 어떻게든 막으려 들었던 문재인 정부의 성과에 '경의'를 표한다.

코로나-19 전염병 전염이 다시금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다시 전염이 확산되어 갔을 때의 정부의 행태에 대해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19 발발 초기에 한 반도 남쪽인 민들이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사용하고, 딱히 어떤 처벌을 내리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방역 조치를 취한 경험이었음에도 2차 유행이 불거지자 정부는 강력한 억압 조치를 취해왔다. 파쇼들의 집회에 대한 '엄중 처벌'과 같은 협박을 하거나, 말갈지도 않은 경고로 다른 인민들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에 '본보기'를 보였다.

다시 코로나-19 전염이 확산될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닌 지금, 우리는 정부의 지난 방역 과정에서 드러난 엄청난 국가주의적, 파쇼적 행태를 강력히 비판한다. 정부는 인민이 전염병의 상황에서 방역의 주체가 아니라 정부와 국가의 부속품으로 전락시켰고, 그 정책의 실행 과정에서 인민이 정부와 국가에 의존하도록 노예화했다. 인민은 다른 인민과 연대하거나 상호부조하지 못했고, 그저 정부가 무언가를 해주기를 기다리는 수동적인 존재로 변모하도록 국가가 강제했다.

정부와 국가는 인민을 노예화하며 수동적으로 만드는 방역 정책을 중단하고, 인민들이 스스로 사태를 극복할 수 있도록 스스로 해산하라. 당신들의 권력 확장 욕구는 그저 파쇼적 행태에 불과하며, 방역이라는 이름의 파시즘은 그것을 정당화하지 못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1935005?sid=100>